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장애인주일 특별메시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의 친구로 오셨고, 이런 주님의 삶은 오랜 인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두드러진 특징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향상인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일찍이 사랑부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사랑과 기쁨의 미소는 우리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전, 사랑부의 중요한 일원이었던 주몽 재활원 학생들이 상일동에서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우리교회까지 오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천호동교회를 소개했는데, 잘 정착해서 너무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우리교회는 또한 호산나 대학을 세우고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아가페 타운에 위치한 호산나 대학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탁월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호산나 대학 학생들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별이 “호산나 학교에 안 보낸다.”라는 위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교회를 향한 학부모들의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교회에는 또한 예배다부가 있어 농아인들을 위한 전문맞춤 섬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 50여 명의 농아인들이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의 많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섬기는 부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외된 자, 약한 자, 작은 자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일, 길을 열어주는 일, 그들을 찾아가 교제의 악수를 먼저 청하는 일, 등등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잘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진하게 발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서울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목사 박노철

오늘은 종려주일, 장애인 주일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세례식 거행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구주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찬송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오늘 우리교회는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한다. 또한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찬양예배 시 사랑부, 예배다부의 특별찬양이 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 십자가의 길에 등장하는 인물들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성금요일 (4.18) 금요기도회 : 오후 8:00, 연합다락방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금년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요절로 시몬 베드로, 가롯 유다, 본디오 빌라도, 구레네 시몬,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묵

상하게 된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열리는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성금요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하며 금요기도회는 연합다락방으로 오후 8시부터 본당에서 모인다.

북한성도와 탈북난민을 위한 고난주간 연합 촛불 기도회

4월14일(월) 오후7:30 서울역 광장 / 설교 : 이종윤 원로 목사

2014년 고난주간을 맞아 말할 수 없는 핍박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북한지하성도들과 탈북난민을 위한 기도회가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주최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14일(월) 오후7:30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며 우리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설교한다. 서울교회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부활절 새벽예배 : 4.20(주) 새벽 5:00 / 주일 I, II, III부 예배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 찬양대 부활절 절기찬양 / 순결 서약식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성찬은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주제로 거행되는 2014년 순결서약식이 찬양예배시에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4월 20일(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으며 순결서약 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 중등부(21명) : 강민성 김백겸 김지수 김희진 노지호 박승찬 박하은 방현민 소 준 송윤희 송지현 신동훈 오예성 이상은 이지우 장하랑 장해라 정민서 황수지 황채영 김소람
- 고등부(5명) : 김수민 남유라 이다솜 이주영 조윤수
- 청년1부(2명) : 이충원 임주빈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송인권 장로)가 부활절 절기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한편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라는

홍해작전 준비 시작하다

주제 :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히11:16)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6월6일(금) ~ 25일(수) / 새벽 5:00~6:00

2014년 홍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히11:16),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다. 기간은 6월 6일(금) ~ 6월 25일(수)이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다.

홍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

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6)

(문 126) 에스라3:8-13, 5:13-17은 제2성전은 고레스왕 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4:24에서는 다리오 2년에 시작했고, 학개 2:15에서는 주전 520년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 에스라3:10-11은 고레스왕의 명을 따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이 솔로몬 성전 터에서 희생제물을 바칠 때 그해 7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537년(또는 538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4:4 이하에서는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이웃나라들이 고레스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4:24은 이들의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다리오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주전520년(또는519년)쯤 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집은 훌륭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 채 버려두고 재건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학개1:3-4) 주전 520년(또는 519년)쯤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므로 16년 전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유대인들에게 독촉했습니다. 유대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학1:14)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고 합니다.(학1:15)

일곱째 달 24일에 학개는 제2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9) 2개월 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이라 했습니다.(18)

다리오왕은 537년에 고레스왕의 본래 조서를 찾아 이웃나라의 방해 없이 성전 재건 공사를 명령했습니다.(에스라6:3-12) 516년에 제2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냈습니다.(15)

이렇게 성경의 모든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에 상호충돌이나 모순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주 계속)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They took palm branches and went out to meet him,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종려주일

Palm Sunday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4월 13일 오늘이 종려주일이며, 오늘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등을 상징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지원자주일(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례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뜻 깊은 주간으로 삼도록 합니다.



사순절 묵상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리려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심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남기신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 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평생이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복을 허락 받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라만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고 가야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로 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때에, 우리 서울교회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담당하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복을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서울교회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운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다시금 깨닫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첫날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 ①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주일, 막11:1-11)
- ② 성전을 두 번째 정결케 하셨습니다.(월요일, 막11:15-26)
- ③ 유대인과 마지막 논쟁을 벌이셨습니다.(화요일, 막11:27-12:40)
-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을 하셨습니다.(화요일 오후, 마24:3-51)
- 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화요일 막14:3-9)
- ⑥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을 벌입니다.(화요일 밤, 막14:10-11)
- ⑦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잡수셨습니다.(목요일 오후, 막14:12-25)
- ⑨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습니다.(목요일 밤, 막14:32-52)
- ⑩ 안나스 앞에서 야간재판을 받으셨습니다.(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18:12-13)
- ⑪ 가야바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14:53-72)
-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을 또 받으셨습니다.(금요일 오전, 눅22:66-71)
- ⑬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금요일 오전, 눅23:1-7)
- ⑭ 헤롯 안다바 앞에 섰습니다.(금요일 오전, 눅23:6-12)
- ⑮ 빌라도 앞에서 두 번째로 섰습니다.(금요일, 눅23:13-25)
- ⑯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금요일 오전9시-오후3시, 막15:16-41)
- 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금요일 오후6시 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15:42-47)
- ⑱ 무덤에 머무셨습니다.(토요일)
- ⑳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주일 새벽, 막16:1-8)

박두호 장로

